

(원제:말씀하시면)

김영범

D A/D G/D D
 주님 말씀하-시면 - 내가 나 아가-리다 -
 D G A D
 주님 뜻 이아-니면 - 내가 명 취서-리다 -
 D/F# G A A/C# D
 나의 가 고서-는 것 - 주님 뜻에 있-으니 -
 D/F# G G/A D 1. 2.
 오 주-님- 나 를 이끄-소-서- 주님
 D/F# A/G D/F# G Asus⁴ A Bm⁷
 뜻 하 선 그-곳에 - 나 있 기 원함-니-다 -
 D/F# A/G D/F# G Asus⁴ A Bm⁷
 이끄 시 는-대로 - 순종 하 매달-리-니 -
 D/F# A/G D/F# G Asus⁴ A Bm⁷
 연약 한 내-영혼 - 통하 여 일하-소-서 -
 D/F# Em D/F# Gmaj⁷ Asus⁴ 1. A/G D/F#
 주님 나 라와-그 뜻 을 위-하여 - - 뜻 하
 2. A/G D/F# G G/A D
 - 오-주-님- 나 를 이끄-소-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9월 3주

가정예배

신앙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저희 또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족 모두가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님 말씀하시면 (QR 코드로 함께하세요)



말씀읽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 사무엘하 7:1-7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3.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인도자가 내용을 읽습니다] **제목: 성숙한 신앙인은 당연한 것을 묻습니다.**

말씀듣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몇 가지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선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다윗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옷사가 죽는 등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를 상의했고 나단 선지자는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던 일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던 두 가지 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신앙적인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쭙며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나누기

[아래의 질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 ① 인간적인 열정과 나의 생각으로 교회일을 하다가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 ② 당연한 일도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제목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 ①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 ② 당연한 것을 묻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